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[미국 경제]

- WSJ:미 고용 붐 계속... 2월 27만5천개 증가
- Bloomberg: 뉴욕주 민간 일자리 기록적으로 증가.. 8백35만개로
- Bloomberg: 미 실업률은 2년 만에 가장 높아... 고용 강세 불구
- WSJ: 파월 의장, “금리 인하 시기 오래 걸리지 않아”

[미국 금융]

- Bloomberg: 파월 의장, “미 은행 시스템, 상업용 부동산 위험 견딜수 있어”
- Bloomberg: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증시 상승세
- WSJ: 연체된 코로나 대출금 회수 중.. 2백억달러 규모 이상

[세계 경제]

- Bloomberg: WTO의 소멸은 불가피해 보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CNBC: 2019년 이후 패밀리 오피스 세 배로 증가, 월가에 새로운 파장
- WSJ: 크루즈 산업 인기 ... 투자자들 때늦은 참여
- WSJ: Prada, 매출과 이익 급증 후 시장 가치 30억 달러 가까이 상승
- MarketWatch: Costco, 멤버십 요금 인상 안 해 ... 애널리스트들 실망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정보

[미국 경제]

WSJ: Hiring Boom Continues With 275,000 Jobs Added

미 고용 붐 계속... 2월 27만5천개 증가

- 2월 고용은 계속 붐을 이루고 있다. 2월에 총 27만5천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다. 당초 예상치 19만8천개를 상회한 숫자. 대신 임금 상승은 둔화됐다. 이는 인플레이가 둔화되면서 보이는 미 경제의 강한 모습이다. 연방 노동부의 오늘 금요일 발표 결과다.
- 이번 데이터를 통해 연준이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를 인하하고 올해 초 약세를 보인 금융 시장에 잠재적으로 활력을 불어올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.
- 한편 실업률은 3.7%라는 예상치보다 높은 3.9%로 나타났다. 지난해 4월 이래 0.5% 포인트 증가한 수치.

WSJ 기사

Bloomberg: NY ‘Business Is Booming’ as Jobs Hit Record Post Pandemic
뉴욕주 민간 일자리 기록적으로 증가.. 8백35만개로

- 뉴욕주 민간 일자리가 1월에 8백35만개로 증가해, 팬데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Cathy Hochul 뉴욕주지사는 밝혔다.
- 뉴욕주 노동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팬데믹 절정기, 즉 고용이 30년만에 최저치인 6백40만개에 달했던 이래로 민간 부문에 1백9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됐다.
- 특히 사교육, 건강 보건, 레저, 현대 산업이 일자리 증가를 주도했다.

Bloomberg 기사

Bloomberg: US Jobless Rate Hits Two-Year High Even as Hiring Stays Strong 미 실업률은 2년 만에 가장 높아... 고용 강세 불구

- 일자리 강세에도 불구하고 2월에 미 실업률이 지난 2년 내 가장 높게 나타났다. 이는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탄력적임을 보여준다.
- 실업률은 3.9%로 상승했고, 임금 인상률은 둔화됐다. 해당 보고서는 시장이 점차 하향하면서 완만한 일자리와 임금 상승으로 인플레이 확장 없이 경제가 확장될 것임을 시사한다.

Bloomberg 기사

WSJ: Powell: Fed Is 'Not Far' From Gaining Confidence Needed to Cut Rates 파월 의장, “금리 인하 시기 오래 걸리지 않아”

- 파월 의장은 이틀째 연방의회를 방문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멀지 않다고 말하면서, 현재 금리가 완만한 인플레이와 완만한 성장기에 예상되는 금리 수준보다 훨씬 높다고 말했다.
- 그는 “우리가 자신감을 갖게 됐을 때,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할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

WSJ 기사

[미국 금융]

Bloomberg: Powell Says US Banking System Can Withstand Commercial Real Estate Threats 파월 의장, “미 은행 시스템, 상업용 부동산 위험 견딜수 있어”

- “점차 증가하는 상업용 부동산 용자가 일부 은행에 위험을 줄 수 있지만 전반적인 시스템 리스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.” 특히 큰 은행들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.

- 파월 의장은 어제 목요일 상원banking위원회에 출두해 이같이 말하고, 본인은 대출 기관들과 논의해 잠재적인 손실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.
- 그의 발언은 지난달 제닛 엘런 미재무장관이 은행의 상황은 관리될 수 있다는 입장과 같은 내용이다.

Bloomberg 기사

Bloomberg: Stocks Rise as Jobs Data Show Fed in 'Sweet Spot': Markets Wrap

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증시 상승세

- 증시가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중이다. 디플레이션 추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임금 상승이 없으면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. 또한 연준이 연착륙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불러일으키면서, 급속도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.
- 2년물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트레이더들은 오는 6월에 금리를 0.25% 인하시킬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. 달리는 후퇴했다.

Bloomberg 기사

WSJ: U.S. Seeks to Collect on Up to \$20 Billion in Delinquent Covid Loans

연체된 코로나 대출금 회수 중.. 2백억달러 규모 이상

- 팬데믹 동안 1백만건의 용자를 받은 소기업과 비영리 단체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.
- 최근 중소기업청은 잔액이 10만달러 이하인 2백억 달러 규모의 연체된 코로나 재난 지원 대출과 관련하여, 연방 재무부에 회수를 의뢰하기 시작했다.

WSJ 기사

[세계 경제]

Bloomberg: The Death of the WTO Now Looks Inevitable **WTO의 소멸은 불가피해 보여**

- 지난주 열린 제13차 세계무역기구(WTO) 연례회의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처럼 보인다. 마지막에 겨우 성사된 합의에는 거의 아무런 내용이 없으며, 이는 WTO의 다가올 운명을 늦출 뿐이다.
- WTO를 일으키는 것은 필요하며 달성 가능하지만, 미국의 의지가 필수적이다.

- 한편, 농업 보조금과 남획에 관한 협상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.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분쟁 해결 절차를 회복하는 것도, 미국이 상소기구 판사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해결되지 못했다.
- WTO의 시스템과 절차에 대한 불만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. WTO는 국제 무역을 규율하는 규칙을 정하고 집행하기 위해 존재하지만, 해당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.

Bloomberg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CNBC: Family offices have tripled since 2019, creating a new gold rush on Wall Street

2019년 이후 패밀리 오피스 세 배로 증가, 월가에 새로운 파장

- 2019년 이후 전 세계 패밀리 오피스의 수가 3배로 증가했다. 이는 사모펀드, 헤지펀드, 벤처캐피탈 간에 투자 유치를 위한 새로운 경쟁을 유발했다.
- Preqin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, 부유층의 개인 투자 기관인 패밀리 오피스의 수는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4천5백개를 넘어섰다. 북미 지역에 1천6백 82개로 가장 많은 패밀리 오피스가 위치했으며, 이들이 전 세계 패밀리 오피스 자산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.
- 전문가들은 패밀리 오피스가 6조 달러 이상을 관리하고 있으며,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.

CNBC 기사

WSJ: Cruises Are More Popular Than Ever—and Investors Are Late to the Party

크루즈 산업 인기 ... 투자자들 때늦은 참여

- 코로나로 크루즈 산업이 중단되고 4년이 지난 현재, 붐비지 않는 갑판과 파격 할인 혜택의 짧은 황금기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.
- 선박 객실이 빠르게 매진되는 상황에서, 크루즈 업계의 'Wave Season'이 끝나는 이번 달에 상품을 예약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.
- 여행객보다는 투자자에게 호재이다. 최저가가 사라지기는 했지만, 크루즈 선사 주식 저가 매수는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.

WSJ 기사

WSJ: Prada Adds Nearly \$3 Billion in Market Value After Jump in Sales, Profit

Prada, 매출과 이익 급증 후 시장 가치 30억 달러 가까이 상승

- 프라다는 연간 수익과 매출에서 급증세를 보이며, 업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유럽 명품 기업들을 제치고 약 27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올렸다.
- 2023년 프라다의 매출은 고정통화 기준 17% 증가했으며, 순이익은 2022년에 비해 44% 증가했다. Visible Alpha는 프라다의 매출과 수익이 분석가들의 예상치를 상회한 것이라 평가했다.
- Alpha Value의 분석가 Jie Zhang는 “그룹의 연말 실적이 홍콩과 마카오 및 주변 아시아 국가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지출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받았다.”고 설명했다.

WSJ 기사

Market Watch: Costco isn't raising its membership fee. Analysts are disappointed.

Costco, 멤버십 요금 인상 안 해 ... 애널리스트들 실망

- 목요일 코스트코는 장 마감 이후 4분기 매출이 약 6백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. 하지만 회원비 인상이 없다는 점이 여전히 화두이다.
- 코스트코의 마지막 멤버십 비용 인상 시기는 2017년으로, 당시 가장 저렴한 연간 멤버십 비용을 60달러로 인상한 바 있다.
- BMO Capital Markets 분석가 Kelly Bania는 “코스트코가 많은 기대를 모았던 회원비 인상과 관련된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, 이는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.”라고 설명했다.
- 코스트코 주가는 4분기 실적 발표 이후, 금요일 개장 전 거래에서 3.9% 하락했다.

MarketWatch 기사

[보고서]

美서 2월 8만5천명 해고...2009년 금융위기 이후 월간 기준 최대

전달 대비 3%, 전년 동월 대비 9% 각각 증가

미국의 지난달 해고 규모가 2월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였다고 미 CNBC 방송이 7일(현지시간) 보도했다.

재취업 알선업체인 '챌린저,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'(이하 챌린저)의 집계 결과 지난달 발표된 해고 규모는 테크(기술)와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모두 8만4천638명으로 전달 대비 3%, 지난해 동월에 견줘 9% 각각 증가했다.

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2월의 18만6천350명 이후 2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, New York, NY 10022

[Unsubscribe office@kocham.org](mailto:office@kocham.org)

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

Sent by office@kocham.ccsend.com